

# 나를 감동시킨 한권의 책

차하순

서강대 교수·서양사

책을 읽게 되는 동기는 개인마다 다를 게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런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직업에 더욱더 충실하고 건강이나 생활을 지혜롭게 유지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새 지식을 얻는 것이 책을 읽는 첫째 목표일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책들을 읽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에서 쌓인 긴장감을 풀기 위해 책을 읽으려 한다. 이럴 때엔 골똘히 생각에 잠기게 하거나 이리저리 머리를 쓰게 하는 책일수록 피해야 할 것이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또는 산속 개울가 나무그늘 아래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속이 후련하다. 이 경우 독서는 하나의 오락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훈을 주는 책들을 읽는 경향이 있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물의 전기는 이런 종류에 속한다. 이런 책들은 특히 정신적으로 남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사춘기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인생행로에 오래도록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남의 경험을 통해 얻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를 곰곰히 되씹어야 한다. 한 마디로 교훈을 주는 책은 교육적 목적과 부합된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책들을 읽기를 좋아한다. 그런 책들은 우리의 정을 뭉클 솟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에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마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고행과 수도의 길을 걸어간 성인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읽으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감동을 억누르기 어려울 것이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지식을 제공하면서도 재미있고 교훈적이면서도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 있다. 예컨대 「레미제라블」은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소설이다. 또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프랑스 사회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역사지식을 보태주는 책이므로 이 소설은 지식과 흥미, 교훈과 도덕심을 다 일깨워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우리의 마음 속을 깊이 흔들어 놓는 감동적인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나는 지난 여름 아주 오랜만에 그런 책을 읽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지도 한참됐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저자가 생소하였다. 나는 읽는 동안 눈물이 저절로 나와 몇번이곤 울었다. 집사람과 함께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여러날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고 그 내용은 며칠동안 내내 두 사람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어떻게 사람이 진실을 찾아 스스로를 그처럼 시험할 수 있을까. 그가 얻은 진실이란 지식이면서도 행동이었다. 그가 한 일은 보통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갖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그들 속에 묻혀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용의가 있으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말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김진홍.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의 책을 읽고 한번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반성해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93년 10월 5일 제136호  
격주간·매월 5,200원 발행

뉴스 2 국제규모 출판심포지움 열린다 외

표지 4 해외유출 전적문화재 어떤 것들 있나

외규장각도서 반환논의 계기로 살펴본 해외 고서 실태

연재기획 6 바람도 옛 운율로 부는 송강문학의 고향

책의 해에 찾아간 책의 명소 6 정송강사와 식영정

특별기고 8 개화기 출판 서점가를 가다 — 이승우

한말 신문광고에 비친 책방 풍속도

서평 12 신정현「정치학」— 장달중

김경동「한국사회변동론」— 임희섭

13 도노번「페미니즘 이론」— 이경숙

김열규「어머니, 동화는 이렇게…」— 김재은

14 권영민「한국현대문학사」— 이재선

김윤식 외「한국소설사」— 김민수

15 이광호「위반의 시학」— 김인환

초점 16 출판사 참여 유선방송 어떤 일들 계획하나

교육 및 어린이 프로그램 분야에 4개사 선정

리포트 18 신한국시대 여는 잡지언론의 개혁과 위상

한국잡지협회 주최 제13회 잡지세미나 지상중계

출판화제 19 서점가 휙쓰는 '이건희신드롬'의 실상은 이렇다

모두 6종 선보이며 경쟁 벌이고 있지만 차별성 거의 없어

이 책 그 사람 20 「글쓰기 소프트」 펴낸 김해식씨

「커피 카피 코피」 펴낸 이향기씨

21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번역한 정준모씨

「택시는 토큰을 안받습니다」 낸 임안호씨

해외출판 22 어린이에게서 출판의 미래를 찾는다 — 유은영

미국 출판계가 꿈꾸는 다가올 시대의 6가지 주요 흐름

세계의 책 24 끝내 죽음에 이르는 희대의 성편력 — 배병삼

가학성 변태성욕의 원조 사드 전기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도서음성정보서비스 / 정기구독안내